

위염환자에서 헬리코박터 파이로이 감염과 빈혈과의 관련성

- 1개 종합병원 검진자를 대상으로 -

안창호, 김재윤, 송미희, 김현미, 송찬희*

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교실

연구배경: 헬리코박터 파이로이는 소화성 궤양, 점막 연관 림프조직성 림포암, 위선암, 만성 위축성 위염등의 위장관질환뿐만 아니라 철분대사에 영향을 주어 빈혈의 유병율이 증가한다는 여러 증례보고 및 역학조사가 있었으나 국내에서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미흡하여 본 저자들은 위염이 있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헬리코박터 파이로이 감염이 빈혈과 관련성이 있는지 조사해 보고자 하였다.

방법: 2001년 3월부터 2001년 9월까지 서울에 소재한 1곳의 3차 의료기관 종합건진 수검자들 중에서 위내시경 검사상 위염이 있으면서 문진과 검진 결과 빈혈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다른 기질적 질환이 없고 조직검사나 항체 검사를 통해 헬리코박터균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었던 40세 이상의 남성 및 폐경 후 여성 540명을 대상으로 헤모글로빈치, 헤마토크리트, 평균적혈구 용적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.

결과: 남성의 경우 나이와 혈색소 및 헤마토크리트 사이에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고, 여성의 경우는 나이와 혈색소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. 나이를 보정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헬리코박터 음성인 경우 남자에서 혈색소 및 헤마토크리트를 기준으로 한 빈혈에 대한 교차비가 각각 0.639 (95% 신뢰구간 0.126~3.232), 0.999 (95% 신뢰구간 0.587~1.701)이었고, 여자에서 각각 0.850 (95% 신뢰구간 0.288~2.510), 0.722 (95% 신뢰구간 0.310~1.686)로서 모두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.

결론: 내시경 검사상 위염 소견을 보인 중년 이후의 남성과 폐경 후 여성들에서 헬리코박터 감염은 빈혈의 발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. 앞으로 빈혈 발생의 위험이 높은 소아나 폐경 전 여성을 포함하는 보다 다양한 연구 대상자들에 대하여 헬리코박터 감염과 빈혈과의 관련성을 밝힐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.

중심단어: 빈혈, 헬리코박터 파이로이, 위염, 성인